
2022년 제1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12. 30. ~ 2022. 1. 6.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12. 30.	시청률	0.041

【총 평】

“확장 가상세계와 만나는 ‘메타버스 과학관’ 문 열어”는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메타버스가 가상과학관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했으며, ‘정책인터뷰’는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제도를 소개한 시의성이 돋보였다.

“소방관 애환 ‘시’에 담겨, ‘황색선을 넘나들며’”는 30년을 근무한 소방관의 애환이 가슴 저미는 시로 탄생해 감동을 선사했으며, 시집 판매 수익금 전액을 소방관 유족에게 전달해 인상 깊었다. “37년간 396회 헌혈, ‘헌혈왕’을 만나다”는 헌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저무는 한 해’에서는 새해 소망을 담은 시민들의 인터뷰를 전했다.

【구성 및 내용】

■ 메타버스 과학관에 가다

국립어린이과학관에 메타버스 과학관이 문을 열었다. 어린이들은 착시효과를 체험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OX 퀴즈를 풀어보고 무인단말기에서 스포츠카를 빌려 운전해 본다. 가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겨울방학 집중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정책인터뷰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물 신분증이 없더라도 휴대폰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항, 편의점, 식당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 황색 선을 넘나들며

30년간 화재현장에서 생명을 구했던 한 소방관이 퇴직을 앞두고 동료 소방관의 죽음, 화마의 현장 내용이 담긴 시를 모은 시집을 발간했다. 오는 6월이 정년인 소방관이 내놓은 시집 ‘황색 선을 넘나들며’에는 30여 편의 시들이 담겼다. 수익금 전액은 소방관들의 유족들에게 쓰이고 있다.

■ 헌혈왕을 만나다

20대 초반부터 37년간 약 400여회에 가까운 헌혈을 한 주인공을 소개했다. 헌혈을 계속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 근무가 없는 날이면 헌혈 독려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적정 보유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헌혈에 대한 경험담을 강의를 통해 소개한다.

■ 저무는 한 해

연말 풍경을 담은 영상과 함께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인터뷰 구성으로 담아 송년 분위기와 한 해 결산 의미를 더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안전한 일상을 기원한 시민들의 인터뷰가 소구력을 높였다.

프로그램	생방송 최일구의 정말(65회)		
방송일자	2021. 12. 30.	시청률	0.014

【총 평】

2021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한 해를 정리했다. ‘백신’과 관련해 올 한 해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슈화시켜 진실을 왜곡했던 정치인들과 기사들에 대해 지적하고, 추가 접종에 대한 우려와 기대 그리고 먹는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또 다른 키워드로 접두사 ‘K-’가 꼽혔는데, 올해 옥스퍼드 사전에 26단어가 수록됐다는 점을 짚어 특히 ‘콩글리시’ 즉 영어를 우리 식으로 수용한 단어들이 그대로 기록됐다는 점은 세계인이 우리 문화를 그만큼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이라는 해석을 더해 인상 깊었다. 이 밖에도 지난 1년간의 외교 성과와 경제 상황에 대해 정리하고, 2022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해 주목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2021년을 대표하는 첫 번째 키워드로 ‘백신’을 언급하며 전문가는 백신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 정책을 무분별하게 비난했던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백신 도입과 접종률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았지만 어느 나라보다 빠른 백신 접종률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연대의 힘’을 느꼈다. 청소년 접종률도 1차가 73%를 기록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성인 추가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서 승인이 됐는데 재택 치료자와 경증 환자들에게 사용될 예정이지만 기저 질환자들은 투약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 키워드로는 접두사 ‘K-’를 들었다. 올해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한국어가 26개로, 콩글리시 즉 영어를 우리식으로 표현한 단어가 그대로 수록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라는 의견을 전했다. BTS를 비롯해 K-팝의 세계적인 인기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오징어 게임’ 과 ‘지옥’ 등 OTT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K-드라마’에 이어, ‘K-푸드’ 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세계인들은 ‘K-’ 열풍 이유로 공존, 새로움, 배려, 창의력, 역동적인 역사 등을 들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선진국’으로, 지난 7월 ‘유엔 무역 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선진국으로 격상됐고 올해 유엔 정규 예산 부담률이 세계 11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종전 선언 제안’, ‘K 산업 협력’ 등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정상외교 성과를 전했다. 또 2021년 경제를 정리하고 2022년의 경제를 전망했다. 올해 수출과 무역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쉬운 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수 경제의 치명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은 어려움을 꼽았다. 또 내년 경제 정책의 방향으로 글로벌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탄력적 대응,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 기조 안착, 금융·외환 시장 안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유익한 정보를 전했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 경제		
방송일자	2021. 12. 31.	시청률	0.090

【총 평】

국내외 코로나19 현황을 전하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해외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거리 두기와 백신 접종 효과로 확산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했다. '경제&이슈'는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 성과부터 내년 주택 공급 가속화와 주거 안전망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의 분석과 구체적인 쟁점을 짚어줌으로써 주목도를 높였다. '알쓸신잡'에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주택 연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전했는데 제도의 개요와 장점 그리고 지급 방식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경제&이슈'는 코로나19 관련 이슈를 살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 위중증 환자는 다소 둔화됐지만 감염자는 하루에 93만 명에 이르러 2020년 초반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델타와 오미크론이 동시에 유행해서 확진자 수가 앞으로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보통 바이러스는 지배종과 퇴장종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델타와 오미크론이 같은 속도로 전염되고 있으며 1월말까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는 세계적인 현상과 반대로 줄어 들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백신 3차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접종 완료 비율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예방의 가장 큰 해법이라는 점이 또 한 번 강조되었다.

이어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과 내년 상황을 전망했다.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안정화와 주거 복지 강화를 목표로 삼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 대비 높은 입주 물량 공급과 공공택지 지정 실적을 달성했다. 더불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정책을 추진했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이런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급격하게 올랐는데 부동산 안정에 있어 가장 중점이 되는 건 주택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전청약을 확대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압도적인 공급량을 가시화할 방침이다. 2022년 주택 공급 계획으로 46만 가구를 보급할 예정인데 더 빠른 공급 속도를 위해 사전 청약 물량을 6.8만 가구에서 7.0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 사전 청약과 3기 신도시 중심으로 3.2만 가구 공급. 민간 사전 청약과 서울 도심에서 최초 공급 개시를 해 분기마다 최고 수준의 분양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쓸신잡'에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주택 연금 제도에 관한 내용이 전달되었는데 제도의 의미와 함께 평생 거주, 합리적 상속, 국가 보증, 세제 감면 혜택 등 이점을 소개하고 연금 가입요건과 지급 방식 등 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전했다.

프로그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방송일자	2021. 12. 31.	시청률	0.027

【총 평】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맞아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긴급 상황과 정책 등을 신속히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해 정책방송으로서 빛을 발했다. 특히 확진자 현황, 3차 접종 계획, 방역 체계 구축 과제 등을 다룬 구성이 돋보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2주 연장과 백신 3차 접종의 필요성 등을 다루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노후 간판 개선사업 등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 잡아 주목도를 높였다. 또 '알쓸신잡'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시의적절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구성 및 내용】

국민의 관심사인 백신 예방 접종과 거리두기 등 관련 소식으로 집중도를 높였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어 1월 16일까지 유지하고 2022년 1분기까지 국민 대다수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방역위험이 낮은 다중시설부터 방역패스 해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 백신 9천만 회를 확보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도 1백만 명분을 구입할 예정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의 핵심 메시지는 '완전한 위기 극복, 선두 국가전환 원년'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노후 간판 개선 사업,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등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내용을 전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성분인 팍스로비드는 사적으로 구매할 수 없고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2022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생긴다.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이며 1월 9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판개선사업은 업종, 업소주 변경, 다른 간판 선호로 인해 자율적 관리로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10년간의 간판개선사업 성과평과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간판 개선 사업이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에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관리 주체인 지자체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알쓸신잡'에서는 2021년부터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소개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회사가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는 제도이다. 또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할 경우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다고 전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일반적으로는 소비액이 증가할 경우 유리하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15%이므로 전략적일 판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 전문가는 신용카드 지출액이 연 소득 25%를 초과할 경우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한다는 정보를 소개했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1. 12. 31.	시청률	0.082

【총 평】

코로나 19의 5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소식을 첫 번째로 소개했다. 유행 규모는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파가 빠른 오미크론 등의 탓으로 현재 적용되는 거리두기는 1월 16일까지 2주 더 연장되고 4인 모임, 9시 영업제한이 계속된다. 또 1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신년사 소식,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국민의 새해 소망을 전했다. 이 밖에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정부 정책으로 금융, 재정, 조세, 환경, 기상 분야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정부 정책을 전해 관심도를 제고했다.

【구성 및 내용】

'거리두기 2주 연장, 청소년 방역패스 3월 적용'은 전파가 빠른 오미크론 등을 원인으로 현재 적용되는 거리두기가 1월 16일 까지 2주 더 연장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4인 모임, 9시 영업제한이 계속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3월부터 적용되는데 3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방역 민생경제 주력, 국민통합 신년사 예정'은 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에서 코로나 19 회복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였으며 2022년 신년사는 '완전한 위기극복'과 선두국가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을 핵심 메시지로 담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 새해 소망'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특히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새해에는 모두가 잘 되길 소망했고, 학생과 직장인들은 비대면 시대가 빨리 끝나고 친구와 동료들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장년층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다.

'선거 출마연령 만 18세, 국회 본회의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 출마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생일이 지난 고등학생도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휠체어 사용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독립 장르로 추가한 공연법 개정안도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10대 뉴스'에서는 백신 접종 시작 203일 만에 국민 70%가 1차 접종 완료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고위험군 감염 증가 등을 이유로 일상 회복 잠시 멈춤 상태이며, 1월 먹는 치료제 도입에 기대감을 보도했다. 또 '뉴스링크'에서는 2022년은 공휴일이 67일이며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임을 전해 관심도를 높였다. '클릭 K'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음을 알려 시의성을 더했고, '오늘의 브리핑'에서는 거리두기 2주 연장 소식과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1. 1.	시청률	0.110

【총 평】

강원도 평창 백석산으로 귀촌해 해발 750m 하오개마을에서 그림을 그리며 사는 부부를 소개하였다. 특히 노년의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지역 미술계에 밀알이 되어 문화 소외지역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민중화가로 그림을 통해 시대와 사람을 표현해 온 남편은 대도시에서 번듯하게 일궈온 미술학원을 정리하고 산골에서의 생활을 선택했고 아내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뜻을 따라 귀촌을 감행했다. 마을의 예술 창작 스튜디오를 통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평화미술 교류전을 소개했다. 부부는 삶을 완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술의 힘을 전하고 있다.

【구성 및 내용】

‘해발 750m, 돌에 그림을 그리는 부부가 산다.’ 편에서는 백두대간의 줄기 험준한 산 속 오지에서 돌에 그림을 그리며 사는 부부를 소개했다. 강원도 평창 백석산 중턱의 하오개마을은 강원도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이다. 돌이 많은 척박한 땅이라서 농사에 맞지 않고 주인공 부부처럼 돌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에게 딱 알맞은 곳이다. 동네를 보러 왔다가 딱하니 자리하고 있는 두꺼비 모양 바위에 매료되어 이곳에 터를 잡았다. 아내는 본래 화가를 꿈꿨지만 집안 형편상 화가 대신 간호사가 되었다. 취미로라도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 화실을 찾아갔다가 선생님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부부는 그림에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자연을 화폭에 담는다. 부부가 합작하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 호랑이를 그려내기도 한다. 부부가 서로 닮은 행동을 하는 모습이 시선을 끌었고, 특히 지향점이 같다는 점에서 삶의 자세나 가치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해 인상 깊었다.

부부가 사는 백석산에는 산나물이 많아 계절에 맞추어 산나물을 채취하여 두었다가 겨울에 꺼내어 식사를 한다. 겨울엔 내년에 심을 계획으로 꽃씨를 거둬가며 부부는 지난 20년 동안 400여종의 야생화를 심어 뜰을 가꾸었다. 아내는 매일 ‘진부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로 출근한다. 부인이 출근하고 나면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한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밥도 주고, 개울가로 가서 작품에 사용할 돌도 줍고, 골라 주워 온 돌에 자연을 덧씌우고 화가의 생각을 보탠다. 아내가 일하는 미술관은 전시회 준비로 바쁘다. 부부는 진부면에서 필요로 하는 일에는 다 참여하여 유명인사가 되었고, 지난 해 진부면에 처음으로 미술관이 생기는 데에도 힘을 더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평창군이 평화도시로 지정되어 모든 문화 행사는 전략적으로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다. 고향 수원의 작가들을 초대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화가 부부 덕분에 문화소외 지역이었던 진부면이 화가들이 바쁘게 왕래하는 곳이 되었다. 나란히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삶을 완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또 그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술의 힘을 전하는 모습을 소구력 있게 담아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1. 2.	시청률	0.117

【총 평】

‘친북’에서는 영하 4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북한의 겨울나기와 연료난, 고질적인 난방연료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자구책을 다뤄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 새해 겨울 관광시즌에 맞춰 북한 최북단 DMZ 평화의 길 투어 소개로 ‘한반도 평화의 봄’을 염원한 기획이 돋보였다. ‘이슈텔링’에서는 미지의 땅 DMZ 여행 편으로 양구 평화의 길을 돌아보았다. 최북단 양구 지역 평화의 길 절경 소개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구성이 소구력을 높였다. 또 4월부터 평화의 길과 고성 1호 GP가 전면 개방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해안가 철조망 등 관광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구성 및 내용】

‘친북’은 북한의 겨울나기와 관련하여 겨울 날씨, 난방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북한의 겨울철 기온은 영하 20도를 기준으로 북쪽 지역은 영하 30~40도에 육박한다. 백두산 지구 최저 기온은 영하 47.5도를 보여줬고 영하 51도를 기록한 적도 있다. 영하 41도에서는 끓는 물을 공중으로 뿌리면 그 순간 얼어 버리고 라면을 포크로 건져 올려 잠깐 두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수준이다. 북한은 온돌이 기본 난방 방식으로, 아파트에도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겨울은 남한보다 더 춥고 길다 보니 겨울을 대비하여 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갈탄을 땔감으로 활용하고 북한 서남지역은 무연탄이 나와서 구공탄을 활용한다. 무연탄은 한 가구당 약 2톤 정도가 필요한데 11월부터 5월까지 사용한다. 연탄이 부족한 북한 사람들은 혹한기를 보내기 위해 땔감나무를 사용한다. 아파트에서도 땔감을 쓰고 장마당에서는 땔감을 팔고 있다. 북한이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다 보니 북한 당국에서는 땔감 채벌 금지령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태양열을 활용하는 정책이 시행 중인데 기술력이 떨어져 어렵다 보니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경제 사정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슈텔링’에서는 양구 평화의 길을 소개했다. 6.25 전쟁 기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영화 ‘고지전’으로도 유명한 양구 평화의 길은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며 어느새 아름다운 생명의 땅으로 변모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땅인 양구 DMZ에서는 천혜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양구에는 멧돼지는 물론 고라니, 토끼, 뱀, 천연기념물인 사향노루 등도 서식한다. 또 고성 투어는 A, B 두 가지 코스로 구분되어 있다. 고성 A 코스는 통일전망타워에서 시작해 군인들의 호위를 받아 철조망을 따라 금강통문까지 걸은 뒤 차량으로 금강산 전망대에 도착해서 유리벽으로 금강산, 해금강의 절경을 구경할 수 있다. 해안가 도보 중에는 철책에 광망 케이블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철책을 만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DMZ 평화의 길 재개 일정도 소개했는데 2022년 4월부터는 10개 지자체 11개 노선이 동시 운영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2. 1. 2.	시청률	0.018

【총 평】

‘청년정책1부-대한민국 신주류 MZ세대’편은 취업난 등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층의 코로나 19 시대 실태와 특성, 이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청년 정책을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새해를 맞아 청년층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기획이 탁월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정책의 사례와 청년 눈높이에 맞춘 정부 부처들의 협업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또 MZ세대가 누구인지 그 실체와 특성을 분석 진단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소개해 청년층의 공감도를 제고했다. 특히 시니어 PD와 MZ세대 PD가 직접 출연해 업무 지시와 퇴근 시간 등을 놓고 서로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세대 간의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준 구성이 흥미로웠다.

【구성 및 내용】

‘대한민국 신주류 MZ 세대’라는 부제로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 사고체계를 가진 MZ 세대의 일부 사례를 선정하여 관련한 내용을 전했다. 메타버스 가상 캠퍼스의 이용, 학교 자퇴 후 목수의 길을 가는 사례자, MZ세대의 사회생활, 정부의 MZ 세대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이 전해졌다.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이용해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생활할 수 있다.

영남대학교 메타버스는 도서관 등 각종 건물과 그 내부를 세부적으로 구현했다. 어떤 학생은 가상캠퍼스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는데 이를 통해서 학과에 국한되지 않는 인간 관계를 맺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방문이 어렵고 각종 오프라인 모임도 어려웠던 신입생들의 경우 가상캠퍼스의 활용도가 높다. MZ 세대가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이유의 단면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MZ세대는 목조주택 빌더로 3년 전부터 경량목조주택 시공팀 막내로 일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아 본인이 할 수 있는 예술로써 목조주택 시공을 선택했고 학교를 자퇴했는데 자신만의 세계를 확고히 구축하는 MZ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어 관심도를 높였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인식을 가진 MZ세대들의 사회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조직 분위기도 그에 맞춰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시니어PD(50대)와 MZ세대 PD(20대)를 대상으로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직장생활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알아보는 구성도 설득력을 높였고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과 MZ세대를 위한 정책을 소개한 구성이 돋보였다.

현재 정부에는 9개 부처에 청년 전담 조직이 있다. 이들 9개 부처는 같은 직제명칭을 넣어 조직을 신설 및 보강해 청년들이 호소하는 불편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당하고 있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청년층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대책과 연체금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정보를 전했다.

프로그램	생방송 최일구의 정말(66회)		
방송일자	2021. 1. 6.	시청률	0.064

【총 평】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롯해 청소년 방역패스 제동 논란,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 최근 시의성 있는 이슈를 심층 진단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 본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완전한 회복, 한반도 평화, 대선의 해 국민통합 분야별로 점검하고 분석해 시청자 이해를 도왔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 제동 논란 아이템에서는 최근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을 소재로 학습권 보장이나 건강권 우선이나를 놓고 대담을 진행해 논점을 진단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세계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PICK & ISSUE에서 93세 김밥장사 기부천사 할머니와 초등학교 형제의 100여만 원 기부 스토리는 새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 소재로 탁월했다.

【구성 및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완전한 회복,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 남북관계 평화정책 등의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대선을 통한 국민통합의 바람을 밝혔다. 현재 집값이 안정세, 혹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남북관계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임기 내 종전선언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종전선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1월 5일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가 남북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밝혔다. 선거와 관련 대통령 후보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유력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대결을 통해 TV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PICK & PICK에서는 나눔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김밥 장사로 전 재산을 기부하고 장애인을 돌본 박춘자 할머니를 초청하였는데 할머니의 나눔이 다시금 화제 되었다. 또 1년간 모은 돈을 경찰서에 몰래 가져다준 초등학생이 화제다. 충남 공주경찰서 금학지구대에 초등학생 형제가 가져다 준 것은 돼지저금통 3개로 총액은 현금 100여만 원이다. 금학지구대에서는 돈을 더 보태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 인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영상진술은 미성년, 장애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현재는 일방적 진술에 대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못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안으로는 영상진술을 활용하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만들거나 혹은 한번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